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1월 ~ 1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수산물, FTA, 약정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4. 10.

할랄 제품
보장법 발표

2019.

할랄 인증 의무화

핵심이슈
도출

“인도네시아, 2019년부터 모든 수입 식품에 할랄 인증 추진”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인도네시아, 2019년부터 모든 수입 식품에 할랄 인증 추진

‘할랄 인증’은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에 부여되는 마크이다.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 중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음식점이나 식품 시장 내에 할랄 인증이 엄격히 적용되어오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할랄 인증이 강화되는 추세로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및 의약품 등으로 확대·적용되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수입 축산물 및 그 제품은 할랄 인증이 의무화돼 있지만 일반 가공식품 등은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의 무슬림 소비자나 관광객들이 할랄 인증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 매출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할랄 인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국내 마요네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2위를 차지하는 대상의 마요네즈 제품은, 현재 인도네시아 마요네즈 시장에서 점유율 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결은 바로 할랄 인증이다. 대상의 마요네즈는 수입산 중 유일하게 할랄 인증을 받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모든 수입 식품 등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할랄인증법이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할랄 인증은 권고에서 의무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진출에 필요한 할랄 인증 업무는 인도네시아 무슬림협회(MUI)가 맡고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으로 식품의 경우 3~8개월이 걸리고 보통 2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2020년 무슬림 인구와 할랄 시장 전망은 인구 19억명, 5조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 무슬림 소비자들도 할랄 제품을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으로 인식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할랄 시장은 전망이 좋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 만큼,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할랄 인증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 할랄 규정 및 취득에 대해 미리 준비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할랄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halal.easeplus.com/mui_halal04-04.html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